대통령 선거의 초반 민심을 가를 설 연휴가 목전에 다가왔다.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간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 전 시장이 15일 2014 평창동계올림픽 후보도시인 평창을 방문,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왼쪽〉 미국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4일(현지시각)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민심 잡아라" 민생속으로

정계개편 물꼬 터진 與 통합신당 묘수 찾기
대선주자들 시장·복지시설 찾아 민심탐방

■정치권 연휴 '귀성 정치'

정계개편이 급류를 타면서 점차 대선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설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족 대이동과 친지 모임에서 입소문으로 대선 후보와 정당 지지가 증폭되는 이른바 '명절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 연휴동안 형성된 민심은 여권의 정계개편 방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올 여름까지 대선 정국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선 주자들도 민생 속으로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정계개편의 물꼬가 터진 범여권은 적극적인 설 민심 탐방과 함께 상호 물밑 접촉에 나서면서 통합신당 창당의 방법 찾기에 나선다.

전당대회에서 대통합 신당 추진을 결의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의 민심을 취합, 대통합 신당 추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탈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당내 재선 그룹 등을 고려할 때, 당 지도부는 설 민심을 기반으로 대통합 신당 창당의 명분과 윤곽을 내놓을 전망이다.

'제3지대에서의 통합신당 창당'이라는 정계개편 방향을 가닥 지은 민주당도 호남지역 민심을 수렴하며 구체적인 방법론 찾기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김효석 원내대표 등은 열린우리당 재선 그룹과 탈당 그룹들과의 물밑 접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미래구상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의 접촉도 강화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중도통합모임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각 지역별로 민심을 취합, 오는 19일 회동을 갖고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 천정배 의원 등이 주축이 된 '민생정치 모임'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향후 연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후보 검증론 파문 최소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후보 검증론이 확산된다면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한나라당 후보들에 각종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한나라당 우세의 대선구도에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여권의 정계개편 시도는 책임 정치의 실종이며 명분 없는 이합집산이라는 적극적인 비판 공세에 나서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야 대선 주자들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생 속으로 뛰어든다. 특히 대선 주자들은 설 연휴 이후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주시하며 대선 행보에 변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기보다는 재래시장 및 사회복지단체 방문 등을 통해 민생 속으로 올인하는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전 대표는 설 연휴 이후 귀국한다.

정동영 전 의장은 '탈(脫) 여의도, 서민 속으로'를 선언했다. 정 전 의장은 원 광주에서 설 연휴를 포함해 일주일 동안 머물며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두 달 동안의 민심 대장정을 시작한다.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이끌어 낸 김근태 전 의장도 설 연휴 기간 동안 추후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 정리에 나설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개헌 함구령' 민주주의 위배"

전해철 민정수석 광주 초청특강

전해철〈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과 관련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개헌 함구령'을 내려 논의조차 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고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특강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내용은 학계는 물론 여야의 지도자 모두가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과 헌법개정'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전 수석은 "개헌에 대한 결정 여부는 의원들 개개인의 몫이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노 대통령 임기 안에 하자는 의견도 과반수를 넘긴 상황에서 야당이 조직적으로 함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야당에서 (개헌)논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또 "개헌의 필요성은 시대적인 요청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주의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5년단임제는 이미 역사적인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제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보다는 내용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할 때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4년 연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다음 대선 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9개월 가량이나 차이가 나서 재임중인 대통령의 임기를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하다"며 "이번이 20년만에 찾아온 절호의 개헌 기회이며 차기 정부에서 하자는 것은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4년의 공과에 대해 전 수석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민생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부패와 비리구조를 청산하고 투명성을 제고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놨으며 ▲지방분권으로 국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왔다"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태준 시인의 설날 에세이

까치 우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내게 설날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때이다. 어릴 적 나의 아버지는 겨울이면 다른 지방으로 일을 나가셨다. 어느 해에는 호남선 터널 보수공사를 하러 가셨다. 아버지는 대개 설 대목에서야 돌아오셨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싸락눈이 수차례 창호문을 치고 길디 긴 고드름이 녹았다 얼었다 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던 날 아버지는 가만히 한 뭉치의 목돈을 내놓으셨다. 그러면 어머니는 찬바람이 맴돌던 빈 쌀독을 한 말의 쌀로 채우고 옷가게에 가 누이들과 내 설빔을 장만해주셨다.

어머니를 따라 종종걸음으로 나선 시장은 설 대목을 보느라 흥성흥성했다. 떡집에는 말랑말랑한 가래떡이 쏟아지고, 생선집에는 꽝꽝 언 동태들이 연신 팔려 나가 이내 동이 났다.

동네에는 튀밥장수가 들어와 손풍로를 돌리고, 어머니는 탁주를 받고 돼지고기 두어 근을 끊어 제사상을 차리는 큰집으로 미리 보냈다. 공장으로 돈 벌러 간 누나도 돌아왔다. 어머니는 맏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아랫목에 공깃밥을 묻어두었다.

큰 통에 절절 끓는 가마솥물을 받아 목욕을 하고 새 내의로 갈아입고 머리맡에 설빔을 개켜두고 잠이 들면 조리장수가 마당까지 들어왔다 썰물 빠지듯 나가는 소리가 아득히 들렸다. 지금껏 그토록 행복했던 시간이 또 얼마나 있었을까. 설날로 건너가는 설레는 시간이었다.

설날에는 객지로 나갔던 가족들이 모여들어 빈집 같던 집안은 모처럼 붐빈다. 시인 백석의 시 '여우난골族'은 설날의 집안 풍경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다.

"그윽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안방)에들 모여서 방안에서는 새옷의 내음새가 나고 /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 내음새도 나고",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아랫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공기놀이)하고"

김 무럭무럭 나는 떡시루 같은 고향
온 가족 모여 앉아 덕담을 나누자
가슴속에 반짝이는 은하가 흐른다

그렇게 간만의 해후에 웃음이 쏟아지고 밤잠을 설쳐 다음날 아침 "욱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에서 민물새우에 무를 썰어 넣고 끓이는 '무이징게국' 냄새가 나도록 늦잠을 잔다고 쓰고 있다.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 모이면 살림을 숨기지 않아서 좋다. 넉넉하면 넉넉한대로 또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그대로 족해서 좋다. 추끈 달아오른 아랫목에 둘러 앉아 솜이불 밑으로 맨발을 넣고 흉금을 털어놓으니 좋다. 서로의 걱정을 덜어 주어 좋다. 큰 솥을 걸어 한솥밥을 먹으니 좋다. 식었던 아궁이마다 붉은 불이 지펴지고 소매를 걷어 전을 부치고 돼지고기에 탁주가 여러 순배 오가니 좋다.

이처럼 고향에 가면 차별이 없어 좋다. 고향은 사람을 가슴에 품을 줄은 알아도 내칠 줄은 모른다. 어서 어서 오라는 손짓은 해도 싫은 내색은 없다. 고향은 관대하고 너그럽다. 시장처럼 잇속을 따지지 않는다. 김이 물씬물씬 오르는 떡시루 같은 게 고향이고 가족이다.

사람들이 설날을 맞아 아이를 앞세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맑은 술 한 병을 받아 가는 이도 있고, 사과 한 상자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 명절을 맞아 우리들 마음은 잠시 잠깐 고향의 뜰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 낮밤 없이 고향은 우리들을 기다려 왔다. 까치 우는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의 안부를 밤새 묻자. 손을 꼬옥 잡고 얼굴을 마주 보고 따뜻한 덕담을 나누자. 우리들 가슴 속으로 맑고 반짝이는 은하가 흐를 것이다.

약 력

1970년 김천 출생
1994년 '문예중앙'으로 등단
시집 '수런거리는 뒤란', '맨발', '가재미' 출간
미당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노작문학상 수상